

특별취재

김제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28일 시청 3층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대표와 종사자 22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매년 반복 증가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김제시가 보건복지부에 교육요청으로 마련 됐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실 송희영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초청하여 부정수급개념과 규모, 부정수급 유형 및 발생원인, 복지종사자의 윤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방안, 부정수급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 (의장 유진섭)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부의안건 처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을 하였다.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점과 좀 더 신중한 사업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하는 총 6건으로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소득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고부천 계보감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처리한 후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 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월동, 추석명절 앞두고

동향향교 주변 대청소 실시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환)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28일 관내 대표적 문화재로 명절 연휴기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헌·내아 및 향교 주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직원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한 이번 대청소에서 참여자들은 향교와 동헌·내아 주변을 돌며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되어 거러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였으며, 추석명절 이곳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교월동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성덕면 이장회의 가져

김제시 성덕면사무소(면장 신형수)는 지난 28일 면사무소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협조사항 전달과 변경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날 회의에서는 제18회 지평선축제 설립 및 주민 참여 협조사항 전달,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시행,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희망복지지원단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폭염대응 요령 안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장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은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준법교육을 위해 읍면동 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우면 회룡리 정도마을앞 도랑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종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7.2ppm에서 0.9ppm까지 떨어져 수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

환경오염원 줄여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새만금 수질 개선에 큰 몫

정읍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옛 도랑 복원사업이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은 물론 새만금 수질 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도랑 복원사업은 내 집 앞 도랑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 특성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근본적인 비점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물 관리와 도랑 정비 그리고 주민실천 운동을 통해 하천의 수질 개선과 함께 지역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옛 도랑 복원사업은 이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우면 회룡리 정도마을앞 도랑 사면정비와 함께, 수질정화시설을 심고 정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실천운동을 2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종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7.2ppm에서 0.9ppm까지 떨어져 수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는 9천1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된 신천리 원천마을 옛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

난 3월 우리 동네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강 살리기 정읍시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천마을 주민들은 “올 11월 도랑사면 정비와 수생식물 식재공사가 준공되면 마을 도랑에서 미꾸라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도랑 정비에 힘쓰는 한편 오는 2018년까지 강살리기 정읍시네트워크와 함께 민·관협력 도랑 복원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추석명절,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 돌봐요”

김제시, 공무원과 저소득계층 945세대 1대1 결연 위문품 전달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계층과 그룹홈,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웃돌봄을 전개하기로 했다.

매년 공무원들이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과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행복 나눔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한 번 더 돌보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결연사업은 이진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저소득계층 945세대가 1대1로 결연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들은 독거노인 그룹홈 171개소와 별도로 결연을 추진하여 그룹홈 경로당을 방문해서 과일·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물론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는 8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놓은 170세대에게 추석명절 긴급지원 생계비 1,850만원을 지원하기 결정했으며, 화재·질병·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2016년 추석맞이 작은 관심과 나

눔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김제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540-3352) 및 각 읍·면·동 주민복지지원담당,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설 명절에도 김제시 전 직원과 민간후원을 통해 저소득 942세대, 사회복지시설 34개소, 그룹홈 170개소에 총 6천 3백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하여 훈훈한 설 명절이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작은 관심과 사랑·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분 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도시계획시설 215개소에 대한 변경 폐지 신설 포함

정읍시는 지난 28일 2025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후 2010년에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고, 3년마다 재검토 수립해오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7월에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새롭게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은 28일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시는 그간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의결,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확정했고, 이후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해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총 231개소에 대한 정비와 용도지역 10개소와 용도지구 3개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와 도시계획시설 215개소에 대한 변경·폐지·신설 등이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당면 현안사업인 철도산업특화단지과 최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각종 민원사항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약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변화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과(도시계획팀 ☎063.539-578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조림지·임도변

·가로변 침엽굴 제거나서

부안군이 저 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날로 증가 오는 9월까지 주요 조림지, 임도변 가로변에 급속하게 번지며 경관을 해치고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침엽굴을 제거하는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침엽굴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나무를 감고 올라가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수목 고사시키며 특히 임도와 주요 산림에 쉽게 번져 조림 목 등 키 작은 나무와 들꽃의 생육을 방해하는 등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덩굴제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하서면 장신리 산 23-2번지 등 47ha에 6000여만 원을 투입해 덩굴제거 사업을 중점적·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경기 안양 정읍장학숙 준공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이 추진해온 정읍 장학숙 준공식이 지난 27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현장에서 있었다.

준공식에는 김성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한 정읍지역 기관단체장과 정읍 애향운동본부, 교육계 관계자, 재경정읍시민회 그리고 지역주민 등 총 35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 장학숙은 연면적 3천 997㎡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모두 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난해 8월 착공, 약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고 지상 1층에 사무실과 사감실, 게스트룸(방문자 숙소)이 배치됐다.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기숙사로, 2·4인실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각 층마다 휴게실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6층에는 독서실과 식당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면학 분위기를 한층 높이는 물론, 화단에 지친 학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하 1층에는 입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동아리실 등이 조성됐다.

특히, 지상 1층에는 정읍 농·축산물 판매장도 설치돼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와 함께 문화관광자원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기 시장은 기념사에서 “정읍 장학숙 건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은 물론 정읍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읍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한편 지역발전과 국가 성장을 이끌어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 장학숙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읍시민과 기업, 단체, 출향인 등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계획면은 지난 5월말 모내기한 계획간척지쌀 홍보 아트디자인을 보여 계획면대 개발, 계획간척지쌀 판로 모색 등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안 계획면,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장회의

부안군 계획면(면장 이평중)이 현장에서 함께 하는 이장회의를 개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는 28일 계획면은 계획면대 팔각장에서 마을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갖고 현안업무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계획면은 지난 5월말 모내기한 계획간척지쌀 홍보 아트디자인을 보여 계획면대 개발, 계획간척지쌀 판로 모색 등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안=이옥수 기자

계획면은 그동안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장회의를 관행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개최하려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 아래 관내 주요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평중 계획면장은 “문턱 없는 현장 중심 이장회의를 개최해 면민제일주의 행정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일선 이장들과 소·공·동 행정을 실현해 계획면을 간척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9월 1일부터 정읍역 환승센터에 전주-원평-태인-정읍 간 직행버스 중간 하차지가 신설된다.

정읍역 환승센터에 직행버스 하차지 신설

9월 1일부터 정읍역 환승센터에 전주-원평-태인-정읍 간 직행버스 중간 하차지가 신설된다.

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인 KTX 광역교통체계 구축 일환으로 시외버스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주에서 출발하는 원평-태인 간 직행버스는 매일 6회 동초교에서 1차 하차지를 경유해 정읍역 환승센터에서 하차한다. 이번 하차지 신설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원평과 태인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원평과 태인 주민들이 KTX를 이용할 경우 직행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하차지 신설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TX를 이용하는 인근 지자체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보완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